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우 리현장은 사망재해(발생일자 : 1994. 8)가 발생된 현장으로 관리감독자는 물론 본사차원의 집중관리로 사망재해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 현장이지만 재해로 나타나지 않은 아차사고건은 이십여건 정도 발생되어 현장 정리정돈,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위험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비롯하여 현장소장 외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토록 하였으나 현장여건상 월말 등의 제반서류 작성 등 업무가 집중될 경우 현장안전관리 업무가 단절되는 경우가 부득이 있게 된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고자 하나 전반적인 상태는 현재까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수시 교육을 통하여 재인식시키고 있지만 공사여건상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교육효과는 좋지 못한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고는 복합적인 것으로 저가의 공사금액으로 무리한 작업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작업전 작업방법의 사전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양성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접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담당업무의 안전교육을 직접 주관하고 여러 업체의 작업인원 관리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나 자신으로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고 교육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안전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육 전 작성된 안전관리 제반서류는 정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시일내 조속 보완조치하고 현장의 아차사고 방지를 위하여 불안정한 상태 및 행동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으며 얼마 남지 않은 공사기간이지만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무사고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주변을 세롭게 정리하는 등 자신을 갖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교수님 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백정안/현대중공업(주) 대리

당 사는 제조 및 건설업 분야 등이 혼합된 업체로서 안전조직상 300여명에 달하는 안전경영부가 있으며 또한 각 사업부별로 안전담당자가 선임되어 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막대한 인원 및 자금이 투입되어도 작업장이 사내외의 워낙 방대하다 보니 '95년 10여명의 각종 사망사고, '96년 8월말 현재 6~7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쑥스러운 사업장이지만, 회사에서는 재해율을 줄이려고 전사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이를 소개한다면 노·사 관계자는 물론 외부인사 영입까지 하면서 매일 전체 일과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건 아니 수백건에 달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사원에 대하여 1회 안전 제안 의무적 제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무리 안전, 안전, 선안전 후시공 등을 외쳐봐도 재해는 발생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각종 정진교육, 수시교육 등을 시행하여도 일시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첫째, 개인 각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을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재해는 또 발생하는 것 같다.

둘째, 작업자 스스로 작업에 임하기 전에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미리 분석 파악 후 작업동료와 사전 상시 협의 후 작업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개인 각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나 개인의 실수가 옆 동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제반 작업에 임한다면 재해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차에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에 임하다 보니 생소한 단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이번 교육을 통하여 말로만 듣고 실천하던 안전을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현재 각 현장에 투입된 제반 안전관리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각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많은 재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양달주/현대중공업(주) 사원